

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금융감독원
	보도	2017.11.21.(화)	배포
		2017.11.20.(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	담 당 자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663)
	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 권 오 상(02-3145-5180)		김 금 태 팀 장 (02-3145-5199)
	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장 나 석 진(02-2003-9018)		채 승 훈 부 장 (02-2003-9230)

**제 목 :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 
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**

-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(상장지수펀드)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

  -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수수료가 낮고 장기  
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가능
  - 안정적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인버스레버리지  
ETF 투자 및 미수거래, 신용사용은 제한

**1. 추진 배경 및 경과**

- ETF(Exchange Trade Fund : 상장지수펀드)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  
으로 추종하는 한편,
  -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 
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하여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  
으로 적합 (붙임 참고)
-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어  
왔음에도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<sup>\*</sup>이  
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으나,
  - \*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 
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소지
  - 금융당국은 기재부와 협의<sup>1</sup>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 
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 
명확히 함
-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 
수 있도록 유관기관 TIF(금융위·금감원·금융투자협회·업계)를  
구성·운영하여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

**2. ETF 투자 관련 주요 내용**

**(1) 세제혜택 적용범위 (연금저축상품 공통사항)**

-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<sup>\*</sup>을 기준으로  
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
  - \*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(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) 내에서  
종합소득 4,000만원 이하는 16.5%(최대 66만원), 종합소득 4,000만원  
이상은 13.2%(최대 52.8만원) 세액공제 가능
-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 
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 
경우에도 동일

**(2)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 발생 (연금저축상품 공통사항)**

-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 
받은 부분에 대하여 16.5%의 기타소득세 부과<sup>\*</sup>
  - \* 종합소득 4,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,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.2%인  
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.5% 부과(100만원 중도해지시 3.2만원 손해)

(3) 투자종목 제한 (투자자 유의사항)

- **안정적 노후자금 마련**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하여 장기 투자에 부적합\*한 **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**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

\* 주식시장이 등락 반복시, 인버스·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 보다 손실펍이 확대 (금감원 금융꿀팁⑤ - 원금 100원이 ETF에 투자되어 5% 상승후 5% 하락하면 99.75원이 되지만, 레버리지 ETF는 10% 상승후 10% 하락시 99원으로 장기투자에 부적합)

(4) 미수거래 및 신용사용 제한 (투자자 유의사항)

- 연금제계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**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**

-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**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**가 발생하면 연금제계 문제가 복잡\*해지며, 이러한 거래행위는 **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**

\* 연체이자 등을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등

3. 기대 효과

- **(저렴한 수수료)**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여 장기투자를 할수록 **비용 부담이 적음**

\*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여 운용보수가 낮고, 거래소 거래로 판매보수가 없음.  
→ ETF 평균 총보수는 0.36%로 인덱스펀드 0.52%보다 저렴('17.3월 기준)

- **(소비자 선택권 제고)**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**세계** 혜택을 받으면서 **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**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**소비자 선택권을 제고**

- 3 -

-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\*가 있는 만큼 **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**으로 활용 가능

\*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「KODEX 200 ETF」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5.9% 상승하면서 정기예금 수익률(연 평균 3.0% 이내)을 상회

※ 이르면 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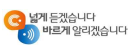
< 금융 용어 설명 >

- **인버스 ETF** : 추종지수(KOSPI200 등)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ETF, 예컨대 추종하는 지수가 상승하면 해당 ETF는 하락
- **레버리지 ETF** : 추종지수보다 가치가 더 변동하는 ETF, 예컨대 추종 지수가 1% 상승하면 해당 ETF는 2% 상승
- **미수거래** :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(통상적으로 40% 이상)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제도. T+2 결제일까지 외상 금액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## 붙임 ETF(상장지수펀드) 개요

- (개념) ETF(Exchange Trade Fund), 즉 상장지수펀드는 **지수 추종**을 목적으로 설정·운용되고, 주식과 동일하게 **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**되는 펀드
-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특정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며, **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** 가능
  - 상장된 ETF의 평균 총보수는 연 0.36%로 인덱스 펀드 평균 연 0.52%보다 **보수가 저렴**(’17.3월말 기준)

### < ETF와 펀드 및 주식간 차이점 >

구 분	ETF	(일반)펀드	상장주식
거래소시장 거래	가능	불가	가능
거래비용	증권사 위탁수수료 및 보수(∼0.99%)	보수(1∼3%) 및 판매·환매수수료	증권사 위탁수수료
매매시 세금	국내 주식형: 없음 기타: 배당소득세(15.4%)	배당소득세(15.4%)	증권거래세(0.3%)
결제일	T+2	T+2∼8	T+2
운용투명성	자산구성내역(PDF) 매일 공개	자산운용보고서 등에 운용내역 공개	회사 공시

- (규모 및 거래현황) ’17.6월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는 283종목, 순자산가치 총액 27.3조원으로 **’16년말 대비 2.1조원 증가**

※ ETF 순자산총액(27.3조원)은 KOSPI(1,549조원) 대비 1.8%

### < ETF 시장규모 추이 >

(단위 : 조원, 개, %)

구분	’10	’11	’12	’13	’14	’15	’16	’17.6월
순 자산	6.1	9.9	14.7	19.4	19.7	21.6	25.1	27.3
상장종목	64	106	135	146	172	198	256	283
KOSPI대비 자산총액	0.5	0.9	1.3	1.6	1.6	1.7	1.9	1.8